

“지산IC 첫 구상부터 잘못”... 전면 백지화 불가피

진출로 용역 최종보고회

진출 실패율 8배·교통사고 14배 ↑
강 시장 “잘잘못 차분히 살필것”

안전성 문제로 장기간 폐쇄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지산IC 사고발생률을 예측하는 용역 결과 왼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가 일반적인 방식보다 구간 진출 실패율,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7억원을 들여 만든 IC 진출로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예산 낭비 책임론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13일 광주시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기관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등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장실사, 교통량 조사와 함께 도로 기하구조 등을 활용한 3D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축, 운전자의 주행행태 분석과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용역은 △지산IC의 현재 모습인 왼쪽 진출로를 이용했을 경우 △최초 설계안인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건설됐을 경우 △완공 당시 설치한 안전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운영했을 경우 △추가 안전구조물을 설치한 뒤 운영했을 때 등을 비교 분석했다.

운전자 가상현실(VR) 주행실험 결과 지산IC 진출 실패율은 일반적 진출로 대비 4가지 대안의 실패율이 2.4~8배가 증가했다. 특히 터널과 진출로 간 이격거리(각각 18m, 5m)가 짧아 좌·우측 진출 방향에 관계없이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진출 실패가 사고와 100% 직결되진 않지만 급정차, 급차로 변경 등 돌발 상황으로 2차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일반적 진출로는 실패율이 5%인 반면 좌측은 40%, 우측은 35%, 노면유도선을 통한 좌측 진출 12%, 시선유도봉 등 시설보완을 통한 좌측 진출로 16% 등이다.

주행속도 분석에서는 좌·우 진출로 모두 급감속이 나타나 둘 다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좌측의 경우 지산터널과 산수터널 직후 급감속이 나타났고, 특히 지산터널에서 두암교차로 방면이 시야 확보 부족으로 더 급격한 감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예측분석 비교 결과는 일반적 진출로 대비 9.9~1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할 경우에도 사고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흐름 분석에서는 진출차로에서 차량 지체 등 불안정한 교통 흐름이 발생했다. 차량 상층 분석 결과 역시 진출로가 없을 때보다 2.7~7.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하는 차량 간 서로 영향을 주는 상충횟수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진출로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 비해 좌측은 6.6배, 우측은 5.4배에 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좌측으로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측도 (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결국 그 지점을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와 인수위원회,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지산IC에 대해선 폐쇄돼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만약 폐쇄한다면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브릿지를 만들건지, 의회 감사 요구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차분히 결정

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산IC는 77억원의 사업비(설계비 6억여원 포함)를 들여 양방향 총연장 0.67km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으며,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사에서 맡았다.

두암타운 등 인근 통행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시민 쉼터인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형적 도로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이나 급정거,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 염려돼왔다. 당초 우측으로 계획했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와 분진, 사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 경찰청 등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동북댐 저수율 20% 밑 추락 초비상

3월 첫주 절감률은 9.1% 치솟아
포근한 날씨로 물 사용량 급증
“절수 동참으로 제한급수 막자”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반면 광주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으로 물 절감률이 9%대까지 치솟았다.

광주시가 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절수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13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3월 첫째주 기준 전년 동기(47만 2000톤) 대비 올해 물 생산량은 42만 8000톤으로, 절감률은 9.1%다.

지난달 둘째주 절감률(9.3%)·넷째주 절감률(9.2%)에 이은 최고 수치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전년

동기 대비 물 생산량을 파악, ‘물 생산량 절감 효과’로 절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 절감률은 지난해 12월 첫째주 8.2%에서 다섯째주 6.4%로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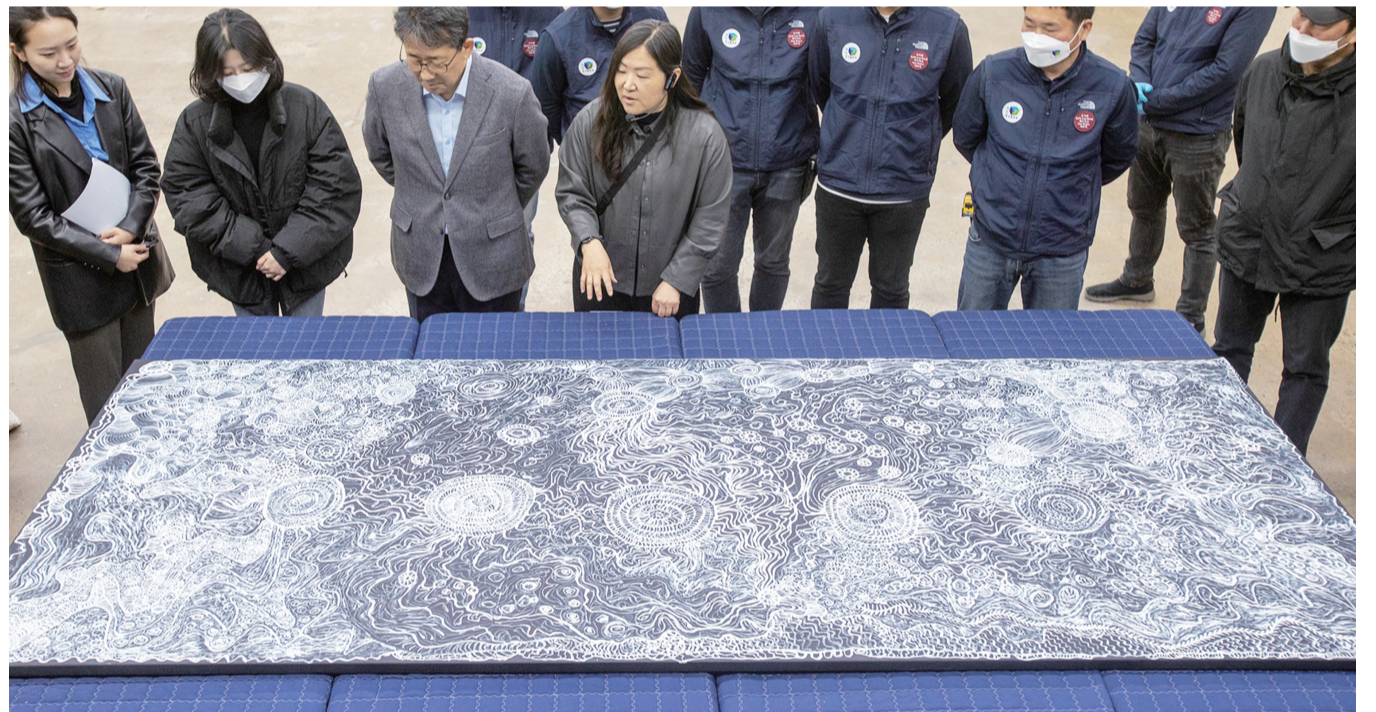
올해 설 연휴 이후인 2월 첫째주에는 -2.4%를 보여 물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드러났지만, 같은달 둘째주에는 9.3% 수치를 기록하며 회복했다.

시민들의 동참 여부에 따라 절감률이 달라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부터 포근한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민의 절수 운동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면에 계속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해포식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25일 앞둔 13일 박양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이숙경 예술감독 등이 3전시실에서 열린 해포식에서 베티 머플러 작가의 ‘나리를 치유하다’ 회화

나건호 기자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